

#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김금미<sup>†</sup>

한영석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를 두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합법성과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 양성평등신념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을 가정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법성과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그리고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신념에, 다시 양성평등신념은 양성평등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자 대학생 33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각 세부 경로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전반적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합법성, 안정성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은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들 가운데 집단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집단몰입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신념이 높았으며, 양성평등신념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수준도 높았다. 종합적인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공변량구조 분석의 결과에서 합법성에서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 최종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대부분 양호했다. 이 결과는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에도 집단몰입요인이 양성평등행동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의 의미를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의 과제도 함께 논하였다.

주제어: 집단지위, 사회정체성이론, 안정성, 합법성, 양성평등신념, 양성평등행동,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행동

---

<sup>†</sup> 교신저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imttokki@hanmail.net)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집단간 관계에서 여성의 내집단 편애와 관련된 행동인 양성평등행동을 예측하는데 성별사회정체성의 각 요인의 상대적 우세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의 사회구조적 선행요인인 합법성과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의 각 요인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요인들이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사회정체성이론의 주장에 따라 성별사회정체성을 중심으로 합법성, 안정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성의 성역할 정체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김득란, 1992; 정진경, 1990)은 여성들에 대하여 설명할 때 개인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인관계 수준의 경험을 취하면 여성이 여성 전체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집합적인 현상은 다루기 어렵게 된다(김금미·한덕웅, 2001). 그런데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은, 자신이 남성이 아니라, 또한 단지 한 개인으로 정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집단에 소속해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이렇게 집단간 관계에서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해 집단 멤버쉽과 집단간 관계를 집합적으로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을 예견하려 한다. 최근에 몇몇 연구들에서 성별 관계에도 이 이론이 유용하다고 제안하거나(Aschmore & Del Boca, 1986; Jackson, Sullivan, Hamish & Hodge, 1996), 혹은 실제로 적용하여 이 이론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

과들(김금미·한덕웅, 2002; 김금미·한영석, 2002; Hogg & Abrams, 1988)을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집단간 관계를 다루는 사회정체성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여성의 내집단 편애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양성평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체성이론에 관련하여 사회구조적 선행변인들과 부적인 사회정체성관리 전략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낮은 지위를 설정하고 낮은 지위 집단들의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침투가능성의 영향과 개인적 이동 대 사회적 경쟁에 대한 선호를 다루었다(Mummendey, Klink, Mielke, Wenzel, & Blanz, 1999b). 특히 Mummendey 등의 통독 연구들에서는 Ellemers, Wilke, 및 Van Knippenberg(1993)가 제안한 안정성, 합법성 및 침투가능성 변인들을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지적하고 그들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 대상은 통일 시점에 있는 동독인들이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내집단 편애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에도 이러한 모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논지가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의 양성평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일은, 여성 자신의 자기비하나 자기 이행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효과가 여성의 성역할을 지속시키며, 이러한 성역할의 이분화가 곧 남녀차별의 결과를 낳아온 현실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성을 지닌다.

##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에 따른 영향

지금까지 사회정체성이론과 관련된 기본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범주화를 통해서 경험된다고 가정하는 사회정체성의 개념적 속성 및 측정과 관련된 문제이다(한덕웅, 2002). 즉 사회정체성의 개념이 Tajfel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도입된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념적·조작적 불일치가 상당히 남아있다(Jackson & Smith, 1999). 예를 들면 Brown과 그의 동료들(Oaker & Brown, 1986)은 사회정체성의 단일차원을 주장하였다. 성한기(2001)는 자기범주화, 집단개입, 집단자기존중감의 요인을 얻었고, 여성의 정체성을 연구한 Cameron와 Lalonde(2001)은 인지적 중심성/내집단 연대감 및 내집단 정서의 요인을 얻었다. 김금미와 한덕웅(2001)은 우리나라 여성 253명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을 연구하여 여성범주동일성, 집단자존심, 부정적 정체성의 세 요인을 얻었고, 이는 Tajfel과 Turner(1986)의 지식, 가치, 정서에 해당하는 세 개의 요인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요인 혹은 중다요인, 중다요인 가운데에도 요인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정체성 요인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체성의 각 요인에 따라 선행변인으로부터, 혹은 후행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Ellemers, Kortekaas 및 Ouwerkerk(1999)는 내집단 지위와 집단 크기 및 집단 형성(자기 선택/할당)의 세 변인을 조작한 실험연구에서 사회정체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에서 집단자존심, 자기범주화, 그리고 집단몰입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평가적·인지적 요인이 아닌 정서적 요인이 내집단 편애의 선행요인이라

고 주장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매개분석을 위해 내외집단 평가의 차이 점수와 집단별로 할당된 점수를 각각 사용하여 공변인분석을 했는데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 중 집단몰입을 넣었을 때만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양성평등행동과 같은 행동결과를 예측하는데 사회정체성의 요인들 가운데 특히 집단몰입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이 큰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차별지각과 남녀동등추구 행동의 관계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미치는 영향을,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별로 알아본 연구(김금미·한영석, 2002)에서 집단몰입과 집단범주화요인은 차별지각과 남녀동등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의 경우에 1) 집단몰입이 낮을수록 차별지각에 따른 차이가 커지고, 집단몰입과 차별지각이 모두 낮을수록 다른 조건들에 비교하여 남녀동등추구가 낮아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2) 여성의 집단범주화 요인이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차별지각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금미와 한덕웅(2001)의 연구에서 여성의 사회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요인들은 여성이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추구하기위한 전략을 예측하는데 서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이 집합적으로 남성과 경쟁하려는 전략과 남성과 비교하려는 두 전략의 선택을 모두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요인은 집단몰입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들 가운데 선행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후행 양성평등행동에 영향이 우세한 요인은 정서 요인에 해당하는 집단몰입 요인이리라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여성의 성별사회정

체성을 요인별로 나누어 합법성, 안정성과 같은 선행사회구조적 요인과 양성평등신념 및 행동과 같은 결과 요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합법성과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Tajfel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정체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Ellemers(1993)는 정적 정체성의 획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선행변인들로서 집단경계의 침투가능성, 집단의 지위, 대안적 집단 멤버쉽, 안정성, 합법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덕웅(2002)도 집단간 비교 상황의 특출성, 집단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지위의 차이, 집단간 상대적 지위의 안정성, 합법성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 등 이른바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Mummendey, Kessler, Klink 및 Mielke(1999a, p. 231)는 동독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성, 합법성, 삼투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가운데 남녀관계에서 비교적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 합법성과 안정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법성과 사회정체성의 관계에서, Ellemers(1993)의 주장과 같이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이면 합법적이지 않을 때보다, 특히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 내집단에 더 정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실증연구들에서는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과가 불명확하다. Mummendey, Mielke, Wenzel, 및 Kanning(1996)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집단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지 않았고, 결과에서도 이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Mummendey 등(1999b)의 다른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내집단 동일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가정했으나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Mummendey 등(1999a)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정체성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내집단동일시가 매개하리라고 명시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사회정체성모델 검증 및 상대박탈이론과의 통합모델 검증에서도 합법성에서 사회정체성으로 향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증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으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안정적인 집단간 관계는 현재와 다른 대안적인 지위 구조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고 불안정한 집단간 관계는 대안적 지위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Ellemers, 1993).

Mummendey 등(1999b)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경쟁과 같은 집합적 전략을 촉진시키며, 불안정성은 내집단 동일시를 약화시키고, 개인적 이동과 같은 개인적 전략을 촉진시키는 직접적 경로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에서 안정성은 내집단동일시에 .12의 경로계수를 보이고, 상위범주화와 개인적 이동에서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Mummendey 등(1999a)의 연구 2에서는 안정성 변인이 동일시에 .22의 경로계수를 보였고, 개인적 이동과 부적으로, 실제적 경쟁과 정적으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Mummendey 등(1996)의 연구 결과에서는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안정성에 관련한 가설들은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정체성과의 관계에서는 1996년 연

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을 모두 사용했으나 1999년 연구들에서는 인지적 정체성(연구a-3 문항/ 연구b-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기인한 차이일 수 있다. 또한 Mummendey 등의 연구에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관계 자체의 안정성을 쟁 뿐, 경제적 지위 관계의 안정성을 재고 있지는 못하다. 즉, 관심있는 측정 대상이 되는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루지 못한다.

한편, Ellemers(1993)는 안정적인 지위 구조와 불안정적인 지위 구조의 차이는 집단 수준의 지위 향상 가능성의 차이이고, 집단 경계의 침투가능성은 개인 수준에서 지위 향상에 대한 전망차이라고 보았다. 이와 일관되게 안정성과 침투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조작한 연구(Ellemers, Van Knippenberg & Wilke, 1990)에서 안정성 조작은 두 번째 집단 과제에서 집단의 수행 결과에 따라 지위가 바뀔 수 있는지의 여부로 조작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안정성은 침투가능성과 독립적으로 만족과 집단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위가 불안정적일 때 집합적 지위 향상의 노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사회정체성의 몇몇 연구자들이 이론에 근거하여 주장하지만, 일관되게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사회정체성의 요인이 다르다는 점과, 종속측정치인 경쟁전략 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의 요인에 따른 영향과, 종속측정치 가운데에는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한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개인이 부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리라고 보았는데, Tajfel과 Turner(1986)는 4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이동' 전략은 높은 지위 집단에 가입을 꾀하는 전략이고, '사회적 경쟁' 전략은 소속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또 '개인화' 전략은 개인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정적 자기 평가를 얻고자 할 때 나타나고, '사회적 창조' 전략은 인지적 방식으로 소속 집단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일컫는다. 이 가운데 양성평등행동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비교하여 상대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므로 '사회적 경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입장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더 높을수록 양성평등신념이나 양성평등행동이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행동에는 양성평등 신념이 선행하는데, 이 점은 기존의 사회정체성의 경쟁 전략을 설명하는 모델과는 다르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집단간 경쟁 전략을 양성평등신념에서 행동으로, 단계적이기보다는 성별사회정체성에서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으로 향하는 동시적 모델로 설명한다. 그러나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1985)에서는 행동에 행동 의도가 선행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Kelly(1993)는 집합적 행동에의 참여를 설명하는데 의도가 선행하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Kelly(1993)의 모델에서는 불협평성의 우선성을 언급하였다. 그 모델에서는 지위가 낮고 자기범주화되면 현재 상태에 대한 "인지적 대안"을 떠올린다. 이때 현재 상태를 비합법적

이고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면 집합적 행동을 더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사회적 변화를 바람직하고 가능하다고 보아 집합적 행동의도를 지니고 이에 따라 집합적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 관련된 의식이 선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서 양성평등신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행동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의 모형을 여성의 사회적 경쟁 전략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신념 및 행동을 예견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즉 합법성,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 때 성별사회정체성은 요인의 개별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각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합법성 및 안정성의 효과:

지위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한 여성의 지각에 따라 성별사회정체성이 달라질 것이다: (1) 집단 지위의 합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2) 집단 지위의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양성평등신념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의 효과: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신념 수준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양성평등신념의 효과:

여성의 양성평등신념이 높을수록 양성평등행동 수준도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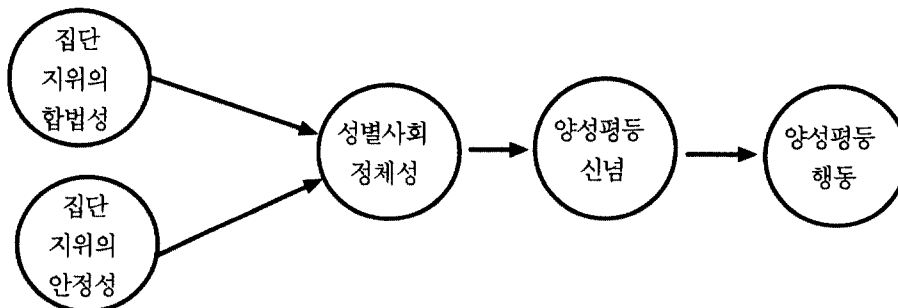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초한 합법성, 안정성에 따른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의 가설 모형

## 연구방법

### 1. 참여자

전국에서 심리학개론 강좌를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남녀학생들은 각각 여학생용과 남학생용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332명의 설문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9명(20.85%), 경기 35명(10.57%), 강원 28명(8.46%), 충청 26명(7.85%), 전라 50명(15.11%), 경상 119명

(35.95%), 기타 지역 5명(1.50%)에 해당한다. 학년별로는 1학년 200명(60.61%), 2학년 90명(27.27%), 3학년 15명(4.55%), 4학년 25명(7.58%), 무응답 2명(0.60%)이었다.

### 2. 성별사회정체성, 합법성, 안정성, 양성평등신념, 양성평등행동의 측정

#### 1) 성별사회정체성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 및 이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

표 1. 성별사회정체성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총점- 문항 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α계수	요인 부하량	공통분
집단 범주 화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	0.669	0.744	0.765	0.592
	나는 남성들을 여성들보다 쉽게 믿는다	0.653	0.748	0.727	0.534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남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0.624	0.756	0.683	0.474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	0.580	0.767	0.648	0.435
	나와 절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0.492	0.786	0.545	0.310
	나는 다른 여성들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0.356	0.809	0.415	0.199
고유치 2.87 α계수 0.801					
집단 자 존 심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0.568	0.711	0.639	0.410
	나는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0.542	0.720	0.639	0.425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중요하다	0.510	0.727	0.599	0.410
	나는 내 자신이 남성답다고 생각한다	0.454	0.742	0.541	0.295
	나는 내 자신이 남성임을 스스로 내세운다	0.444	0.747	0.538	0.290
고유치 2.36 α계수 0.783					
집단 몰 입	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R)	0.470	0.637	0.557	0.312
	나는 여성들과 잘 조화되지 않는다(R)	0.447	0.644	0.532	0.493
	나는 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R)	0.440	0.647	0.521	0.311
	나는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R)	0.415	0.651	0.496	0.396
	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느낀다(R)	0.399	0.655	0.489	0.241
	내가 남성이 아니었다면 행복했을 것이다(R)	0.321	0.676	0.423	0.266
	나는 종종 나 자신이 여성들 중에서 쓸모없는 구성원이라고 느낀다(R)	0.319	0.675	0.422	0.202
• 고유치 1.85 α계수 0.690					

표 2 합법성, 안정성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총점- 문항 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alpha$ 계수	요인 부하량	공통분
<b>합법성</b>				
나도 성별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R)	0.618	0.537	0.824	0.680
나의 성별을 이유로 다른 성별을 지닌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부당하다(R)	0.536	0.561	0.741	0.549
현재 남녀간 지위 관계는 여성과 남성의 행동과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0.434	0.632	0.516	0.266
여성도 남성만큼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다(R)	0.316	0.714	0.375	0.140
고유치 1.63 $\alpha$ 계수 0.678				
<b>안정성</b>				
현재 남성과 여성의 지위 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0.550	0.456	0.811	0.658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10년 후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0.443	0.604	0.561	0.315
현재 남성과 여성의 세력 관계는 노력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본다(R)	0.430	0.625	0.532	0.283
고유치 1.26 $\alpha$ 계수 0.662				

한 국내외 연구들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을 수집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집단심리를 전공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3인이 이 문항들에 대해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정도를 평정하고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총 47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문항들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문항들 가운데 긍정적 문항은 36개 문항이었고, 부정적 문항은 11개 문항이었으며,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들에 대해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느끼거나 행동하는 바'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측정치의 문항들은 7점 척도였다(0-전혀 그렇지 않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 4-약간 그렇다, 5-상당히 그렇다, 6-매우 그렇다).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방향과 역방향인 문항을 역전한 후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81%를 설명한다. 성별사회정체성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외집단 성원들에 비하여 내집단의 성원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음, 내집단 성원들을 쉽게 믿음 등의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를 나타낸다. 따라서 '집단범주화'로 명명하였고, Ellemers 등(1999)의 자기범주화 요인과 내용이 일관된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제 2요인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내집단에 대



한 긍지, 내집단에 대한 의미 부여, 중요성 지각 등의 집단소속에 관련된 정적인 가치 평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집단지존심'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또한 제 3요인은 대체로 내집단의 성원이라는 데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집단에 대한 부적 의미 부여를 질문한 문항도 이 요인에 속하였다. 따라서 Ellemers 등(1999)과 일관되게 '집단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69이었다. 이 요인은 역전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단몰입이 높을수록 전체 성별사회정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2) 합법성과 안정성

합법성은 집단의 현재 지위에 대한 정당성 지각(Ellemers, 1993)으로 정의된다. 합법성에 관련된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표 2에 제시되었다.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의 지위의 합법성을 이루는 문항들의 신뢰도계수는 .68이었고, 안정성을 이루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는 .66이었다. 각 요인들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은 한 개였고, 고유치는 각각 1.63과 1.26이었으며, 모든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한 요인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은 각각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양성평등신념과 양성평등행동 : 양성평등신념

과 양성평등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표 3에 제시되었다. 양성평등신념과 양성평등행동의 구성개념의 신뢰도계수를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  $\alpha$ )로 측정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양성평등신념의 신뢰도는 .67였고, 양성평등행동은 .76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이들 구성개념들도 모두 1요인이었다. 비록 양성평등신념 측정문항 중 사실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면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무력하다(R), 남성들이 잘 살게 될수록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잘 살기 어렵다(R)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요인부하량도 높았다. 특히 '남성들이 잘 살게 될수록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잘 살기 어렵다'는 문항은 다른 문항들보다 직접적 경쟁의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고, 또한 이러한 문항을 포함시켜서 무리가 적다면 오히려 일반화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요인부하량이 다소 낮은 문항들도 이 요인에 포함하였다.

한편 양성평등행동은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높았다. 이 문항들이 대부분 양성평등에 관한 행동 및 행동의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양성평등신념에 비해 실제 행동 혹은 구체적인 행동 의지와 관련되므로 '양성평등행동'의 측면으로 보았다. 여성의 경우 이 문항들에 높게 응답하면 양성평등행동의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도 한 개였으며, 고유치는 각각 1.87, 2.34이었다. 따라서 각각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문항에 요인 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성평등신념과 양성평등행동은 각각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표 3.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총점- 문항 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α계수	요인 부하량	공통분
<b>양성평등신념</b>				
조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책임이 아들에게 있으므로 아들을 낳는 편이 낫다(R)	0.558	0.580	0.731	0.534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면에서 아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	0.498	0.594	0.687	0.473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있다(R)	0.504	0.589	0.623	0.389
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R)	0.526	0.586	0.617	0.380
사실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면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무력하다(R)	0.259	0.672	0.293	0.085
남성들이 잘 살게 될 수록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잘 살기 어렵다(R)	0.111	0.725	0.117	0.013
고유치 1.87 α계수 0.672				
<b>양성평등행동</b>				
여성과 남성대졸자의 초임이 동등해지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업체에게 촉구하는 대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0.539	0.711	0.650	0.254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0.560	0.710	0.644	0.349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취업 기회를 누리도록 정책이 변화 되어야한다	0.523	0.724	0.611	0.422
나는 기업에서 같은 경력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주장하는 편이다	0.479	0.728	0.590	0.212
아버지도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0.487	0.723	0.557	0.311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리도록 정부와 투쟁해야 한다	0.444	0.746	0.504	0.374
자녀가 부모 중 누구의 성씨도 따를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야한다	0.398	0.743	0.460	0.415
고유치 2.34 α계수 0.756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AS 8.01과 LISREL 8.12를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구성개념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의 일개념성을 확인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들과 이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공변량구조분석을 이

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변수들이 다 변량정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보다 최소자승법에서 정상분포를 가정하는 GL(generalized least square method)법을 사용하였다. GL법은 정상분포에 가정을 두는 가중치 부여 방법으로서 측정변수들이 다변량정상분포의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 GL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형의 부합도는 다변량정상분포의 위반에 영향을 덜 받는 일반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비표준부합치(NN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 근접오차(RMSEA)와 비교합치도(CFI)가 함께 사용되었다. 분석의 자료로는 공변량행렬을 이용하였다. 모형

찾기 과정에서 외생변수간의 상관성이 추가지수로 제안되어 이를 모형에 포함한 결과는 결과 기술에서 생략하고 제시하였다.

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관분석결과에서 합법성과 양성평등신념( $r=-.501$ ) 및 양성평등행동간( $r=-.570$ )에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모형분석에서 새로운 경로의 추가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 결 과

### 1. 구성개념들간의 관계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을 알아보았다. 단순상관계수들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 개념들간 상관들이  $r=-.570 \sim .389$ 의 범위를 보였다. 가설에서 제시한 관계별로 보면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인 합법성, 안정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의 관계는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 몰입에서만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합법성;  $r=-.328$ , 안정성;  $r=-.142$ ). 또한 집단 몰입과 양성평등신념( $r=.389$ ), 양성평등신념과 양성평등행동 간의 관계( $r=.368$ )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 몰입과 준거변인들, 예언변인들간의 유의한 상관 결과는 가설의 타당성을 부

### 1) 구성개념들간 회귀분석

① 합법성, 안정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의 관계: 다음으로 사회구조적 변인들의 종합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사회구조적 요인은 집단범주화( $F(2, 329) = 1.24, n.s.$ ), 집단자존심( $F(2, 329) = 2.02, n.s.$ )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집단몰입( $F(2, 329) = 22.85, p>.001$ )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성 및 안정성과 집단몰입의 관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합법성과 안정성은 집단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므로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의 합법성과 안정성의 효과(가설 1)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자신의 현재 지위에 대해 비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위 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몰입하는 성별 집단정체성이 높아졌다. 합법성, 안정성의 두 개

표 4. 구성개념 측정치들간의 상관행렬

	Mean	SD	합법성	안정성	집단 범주화	집단 자존심	집단 몰입	양성 평등신념	양성 평등행동
합법성	1.25	0.75	-						
안정성	2.52	1.03	0.069	-					
집단범주화	3.33	0.77	-0.031	0.078	-				
집단자존심	3.10	0.85	0.077	-0.027	0.094	-			
집단몰입	4.53	0.69	-0.328**	-0.142**	0.188**	0.122*	-		
양성평등신념	4.16	0.79	-0.501**	-0.125*	-0.082	-0.053	0.389**	-	
양성평등행동	5.06	0.73	-0.570**	-0.094+	0.257**	0.058	0.223**	0.368**	-

주. +  $p<.10$ , \*  $p<.05$ , \*\*  $p<.01$ , \*\*\*  $p<.001$

표 5. 합법성/ 안정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의 관계

변수	DF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표준회귀계수(β)
합법성	1	-0.296	0.048	-6.18***	-0.319
안정성	1	-0.080	0.034	-2.31*	-0.119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의 변수는 전반적인 성별사회정체성의 12.2%를 설명했다. 2개 예측변인이 집단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은 합법성( $\beta = -.319, p < .001$ )이 안정성( $\beta = -.119, p < .05$ )보다 높았다.

② 성별사회정체성,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의 관계: 성별사회정체성의 각 요인이 양성평등신념에, 양성평등신념이 양성평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의 각 요인과 양성평등신념의 관계에서 집단범주화와 집단자존심은 양성평등신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집단몰입은 양성평등신념에 영향을 미쳤고, 15.2%를 설명하였다(표 6 참조).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참고로 성별사회정체성의 각 요인이 양성평등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시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18.5%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몰입의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양성평등신념은 양성평등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므로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양성

평등신념의 효과(가설 3)가 지지되었다(표 6 참조). 양성평등신념이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13.6%였다.

## 2. 구성 개념들의 모형 검증

중다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지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 몰입의 개념만을 가지고 합법성과 안정성, 및 양성평등신념/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전반적 합치도 지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양호하였다. 가설 모형의 경로 계수는 표 8에 제시하였으며, 합법성→집단몰입, 안정성→집단몰입의 경로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집단몰입→양성평등신념, 양성평등신념→양성평등행동은 모형이 제안하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의 상관분석결과에서 합법성과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간의 관계가 매우

표 6.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평등의식 및 양성평등 행동의 관계

변수	DF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R <sup>2</sup>
집단범주화	1	-0.085	0.056	-1.50	0.0068
집단자존심	1	-0.049	0.051	-0.97	0.0028
집단몰입	1	0.445	0.057	7.68**	0.1517
양성평등신념	1	0.339	0.047	7.21**	0.1361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가설모형, 수정모형, 최종모형의 합치도 지수

	$\chi^2$	GFI	AGFI	NFI	NNFI	RMSEA	CFI	추가/고정지수
가설모형	518(df=316)	.880	.856	.889	.948	.04	.953	
수정모형	475(df=315)	.890	.868	.898	.959	.04	.963	추가지수 BE 4 1
최종모형	466(df=314)	.892	.870	.900	.961	.04	.965	추가지수 BE 5 1

표 8. 가설모형, 수정모형 및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모형	합법성→ 집단몰입	안정성→ 집단몰입	집단몰입→ 평등신념	평등신념→ 평등행동	합법성→ 평등신념	합법성→ 평등행동
가설모형	-3.907	-0.152	0.593*	0.363*		
수정모형	-0.532*	-0.033	0.170	0.859*	-1.749*	
최종모형	-0.582*	-0.051	0.310*	0.240*	-1.389*	-1.067*

상관이 높았으므로, 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자유모수로 지정하면서, 이전의 모형과 새로운 모형의 합치도를 비교하여 합치도와 간명도를 높이는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수정 모형은 상관분석결과에서 제안된 합법성과 양성평등신념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즉 추가지수로 합법성과 양성평등신념의 관계를 설정하여 부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부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에서 GFI를 제외한 부합도 지수들이 양호했다(표 7 참조). 그러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기존 가설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합법성→집단몰입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유의한 경로였던 집단몰입→양성평등신념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표 8 참조).

따라서 최종모형에서는 상관분석에서 합법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던 합법성과 양성평등행동에 수정모형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로 수정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집단몰입→양성평등신념의 경로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8 참조). 추가된 합법성→양성평등행동의 경로 또한 유의하였다. 전반적 합치도에서 부합도 지수들이 .90을 넘거나 .90에 가까웠고, RMSEA는 .05보다 낮았다(표 7 참조). 결론적으로 최종모형에서는 안정성→집단몰입을 제외한 모든 자유모수들이 유의하였다.

그러나 가설모형과 수정모형 및 최종모형들이 대체로 양호한 부합도 지수들을 보였으므로 모형의 상대적 우세성을 충실히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모형 간에 단계적  $\chi^2$ 차이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여 모형의 우세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chi^2$  검증 결과에서 가설모형보다는 최종모형이 우수하였고( $\chi^2 = 52, df=2, p<.001$ ), 수정모형보다 최종모형이 더 우수하였다( $\chi^2 = 9, df=1, p<0.003$ ). 그러므로 여성의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몰입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집단 지위의 합법성이 집단 몰입,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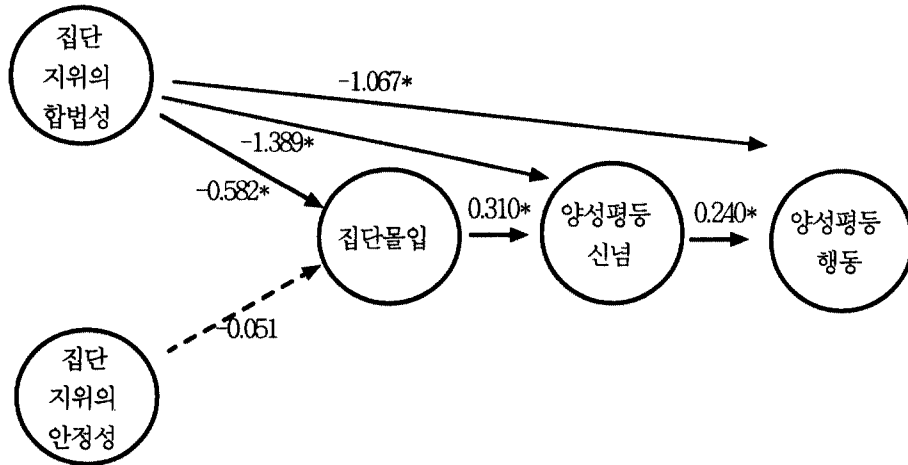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정체성이론에 기초한 합법성, 안정성, 집단몰입과 양성평등신념 및 양성평등행동의 최종모형(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외생변수간 상관은 모형에 표시하지 않았음)

### 논 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정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몰입 요인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즉 합법성이나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다른 두 요인, 즉 집단범주화와 집단자존심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집단몰입 요인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 편애를 종속측정치로 한 Ellemers 등(1993)의 연구 결과와, 성별사회정체성과 경쟁전략의 관계를 알아 본 김금미와 한덕웅(2001)의 연구, 그리고 차별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본 김금미와 한영석(2002)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선행 사회구조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합법성과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회정체성이론에 기초한 구성개념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로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 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에서 합법성이 양성평등신념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는 최종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가 적절했다.

이 때, 합법성이 양성평등신념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Ellemers(1993)는 합법성과 안정성이 상호작용하여 불안정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집단간 관계가 집단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llemers, 1993). Ellemers 등(1993)은 이에 관련한 실험에서,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 및 침투가능성을 조작했을 때(연구 1), 집단 지위가 안정될 때보다 불안정될 때 합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낮은 지위 집단 성원이 경쟁적 행동을 더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안정성과 침투가능성과 함께 지위 구조에서 개인 성원의 지위를 조작(연구 2)하여, 개인이 낮은 지위 집단에 비합법적으로 소속되면 합법적으로 낮은 지위에 소속된 경우보다 내집단 정체를 덜 일으키고, 심지어 낮

은 지위 집단의 멤버십을 포기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위 구조가 불안정하여 집합적 지위 향상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때, 비합법적·저지위 성원의 지위 향상 동기가 행동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여성의 지위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집합적 내집단 편에 전략인 양성평등행동을 더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자기비하를 뛰어 넘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데 대한 지적인 인식,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정서의 요소를 증진시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합법성의 탁월한 영향력으로 볼 때, 이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비합법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본 연구의 결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들 가운데에는 여성비하적인 사회화를 통해 성차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성차별에 대해 의식적으로 비판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성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들에게 양성평등적인 행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으로 인한 정서적 요소들을 강화시켜 집단몰입을 시킬 수 있다. 이는 성별사회정체성의 세 요인들 가운데, 여성이라는 점 자체나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하는 일보다 더 양성평등행동이 나타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 몰입을 통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단의 지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방법들이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남녀 지위 차이에 대한 '비합법성'을 홍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밝혀

졌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합법성은 성별사회정체성을 경유하지 않고 양성평등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위의 비합법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때, 정부에서 혹은 여성단체나 개인들이 같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양성평등정책을 펼치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안정성→성별사회정체성의 관계는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으나 모형검증에서는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성별사회정체성의 관계를 다른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할 때는 이 변인간의 관계가 약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Mummendey 등(1996)의 연구에서도 안정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동독인들이 자신의 상황이 개선되는데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성별 관계에서도 상황의 개선에 대한 믿음의 부족과 자기 비하가 동시에 작용하여 안정성과 양성평등신념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형검증결과에서 안정성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안정성의 효과는 추후에 더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모형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양성평등신념을 경유하였는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경로에 관하여 추후에 연구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적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관련한 연구가 일차원적으로 다루어진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부적 사회정체성 관리전략

가운데 인지적 전략에 해당하는 의식의 측면이 행동 전략에 선행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Ajzen의 모델과 Kelley(1993)의 모형과 일관된다.

한편 여성과 남성의 집단간 관계에서 성원들의 행동을 예견하는 데에는 상대박탈이론의 개념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상대박탈의 선행요인들과 이에 따른 정서적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정체성의 집단몰입요인과 정서적 요소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Mummendey 등(1999a)도 서독인에 대한 동독인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과 상대박탈이론의 접맥을 시도한 바 있다. 추후에 여성을 대상으로 상대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의 통합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Kawakami와 Dion(1993, 1995)의 모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정체성이 높아지면 개인적 상대박탈감이 생기고, 집단정체성이 높아지면 집단적 상대박탈감이 높아지는 지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전체 여성들에게 일반화되기 위하여 더 많은 세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모형에 대한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지 못하여 모형의 일반화가능성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추후에 교차타당화 연구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금미·한덕웅(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2), 15-38.
- 김금미·한덕웅(2002). 집단간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1-15.
- 김금미·한영석(2002).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1-15.
- 김득란(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91.
- 성한기(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한덕웅(2002). 집단행동이론. 시그마프레스.
-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n(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pp.11-39). New York: Springer-Verlag.
- Ashmore, R. D., Del Boca, F. K., & Wohlers, A. J.(1986). Gender stereotypes. In R. D. Ashmore & F. K. Del Boca(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 Cameron, R. E., & Lalonde, R. N.(2001). Social identification and gender-related ideology in women and 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59-77.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 Psychology* (Vol. 4, pp. 27-57). Chichester: Wiley.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nd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 Wilke, J.(1990). The influence of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on strategies of individual mobility and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33-246.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66-778.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Jackson, J. W., & Smith, E. R.(1999). Conceptualizing social identity: A new framework and evidence for the impact of different dimension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1), 120-145.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1996).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41-254.
- Kawakami, K., & Dion, K. L.(1993). The impact of salient self-identities on relative deprivation and action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525-540.
- Kawakami, K., & Dion, K. L.(1995). Social identity and affect as determinants of collective action: Toward and integration of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identity theories. *Theory & Psychology, 5*(4), 551-577.
- Kelly, C.(1993). Group identification, intergroup perceptions and collective action.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4, pp.59-83). Chichester: Wiley.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a).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29-245.
- Mummendey, A., Klink, A., Mielke, R., Wenzel, M., & Blanz, M.(1999b).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group relations and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Results from a field study in Ea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59-285.
- Mummendey, A., Mielke, R., Wenzel, M., & Kanning, U. P.(1996). Social identity of East Germans: The process of unification

-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challenge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In G. Breakwell, & Breakwell, & E. Lyons(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Social psychological analyses of social change*(pp. 405-428).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Oaker, G., & Brown, R. (1986). Intergroup relations in a hospital setting: A further test of social identity theory. *Human Relations*, 39(8), 767-77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한국심리학회지: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2, Vol. 7, No. 3, 1-20

---

# Effects of legitimacy, stability of women on Gender Social Identity and Gender Equality

Kim, Keum-mi Han, Young-seo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that include the effects of legitimacy, and stability of women on gender social identity, and gender equality. In order to test the fitness of this model and each detailed path,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332 femal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is model was well-fitted to the data. Among the specific examinations of the relationship, most of the hypotheses were confirme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effect of legitimacy, group commitment increased. An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group commitment, gender equality increased, too. This result shows usability of social identity theory in male-female intergroup relationship and differentiation of factors of gender social identity.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 word:* social identity theory, legitimacy, stability, gender social identity, gender equality